이국의 삶과 풍경… 사진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도문진원 20개국 교류전시
문예회관·도립미술관 등서
'지역문화의 공감' 주제로
세계유산본부 결연 6개국
유네스코 유산 작품 공유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 중국 닝보 선궈펑의 '민속 공연'.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끊긴 시절에 사진으로 이국의 풍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와 협업해 준비한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과 제주도세계유산본부의 '제주에서 떠나는 유네스코 세계 여행'전이다.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선정 사업으로 마련됐다. 도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예회관 전시실과 공립미술관 등에서 공간별 특성에 맞춰 전시가 이어진다.

'지역문화의 공감'을 주제로 내건 출품작은 20개국 60여 개 도시 120점에 이른다. 동아시아문화도시 12개 도시, 제주도의 자매·우호도시 6개 도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베트남(준회원) 등 25개 도시의 삶과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선보이고 있다. 남미권에서도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10개 도시가 참여했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7개 도시의 작가들도 함께했다. 국내에선 제주,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청주의 사진가들이 작품을 냈다.

이번 사진교류전은 지난 1일 문예회관 1~3전시실에서 막이 올라 이달 13일까지 계속된다. 실내 전시가 끝나면 '뜨락'으로 이름 붙인 문예회관 야외 공간에서 5월 15~6월 16일 전시가 예정됐다. 제주도립미술관은 1층 시민갤러리에서 5월 25~6월 6일 사진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열미술관은 6월 중 전시 일정이 잡혔다. 7월엔 제주도청사 로비에서 사진전이 개최된다.

세계유산본부의 '제주에서 떠나는 유네스코 세계 여행'은 지난 12일부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시작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유산본부와 자매결연한 미국 하와이화산국립공원, 중국 태산,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지, 호주 태즈매니아, 영국 자이언츠 코즈웨이 등 6개국의 사진 30여 점이 나왔다. '하와이화산국립공원의 펠레의 머리카락'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도 볼 수 있다.

전시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관람객들이 해외여행지에 있는 느낌이 들도록 대형 포토존도 설치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투명한 거울에 비친 존재의 성찰

현인갤러리 정창균 초대전
극사실주의 '명경지수' 연작

정창균의 '명경지수-피고 지고'(캔버스에 오일, 2021).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을 뜻하는 명경지수(明鏡止水). 극사실주의 회화 작업을 벌이는 정창균 작가에게 명경지수는 거울과 물처럼 티없고 깨끗한 마음을 뜻한다. 그는 '명경지수'란 제목이 달린 작품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감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이 땅의 존재를 명징하게 들여다보자고 말하고 있다.

그의 '명경지수' 연작이 제주 전시장에 걸렸다.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현인갤러리가 '심상(心相)을 비추는 거울'이란 이름으로 지난 6일부터 정창균 초대전을 마련했다.

정 작가는 책 위에 꽃이나 과일 등이 올려진 장면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낸다. 화려한 꽃으로 대표되는 자연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락하지만 책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심성을 숙성시키는 존재다.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는 투명한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똑같이 비춘다. 거울은 실재와 가상의 세계를 은유하는 도구이면서 온갖 사물이 결국은 생성, 소멸하며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그의 극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의 충실한 재현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일깨우는 순간이기도 하다. 거울에 반영된 사물이 실재인지, 환영인지 감상자들은 선뜻 답하기 어렵다.

정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2010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 한국미술협회의 2011 대한민국 미술인상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갤러리 연락처 747-1500.

진선희기자

서양 악기·무용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

서귀포예당 프로젝트
10월 기획공연 무대에

지난해 제주 지역 성악 인재 발굴에 나섰던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올해는 악기와 무용에 재능있는 아마추어 예술가를 찾는다.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란 이름 아래 운영되는 '2021 지역민 예술인재 발굴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사람들은 10월 30~31일 서귀포예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기획공연 무대에 오를 기회를 갖는다.

모집 분야는 서양 클래식 악기와 무용이다. 서양 클래식 악기는 현악기, 목관악기, 피아노 등으로 공연 당일 들려줄 클래식 음악 1곡(5분 이내)을 연주 영상으로 만들어 접수하면 된다. 고전 무용과 발레에 한하는 무용은 독무나 군무(10인 이내) 동영상(5분 이내)을 촬영해 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독무와 군무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8월 9부터 13일까지 e메일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연 출연진은 분야별 전문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60-3365.

진선희기자

서툴지만 진솔한 시의 언어를 찾아서

제주문학의 집 시 창작 강좌
박현솔·서안나 시인 등 강의

서툴지만 진솔한 시의 언어로 시 창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좌가 열린다. 제주문학의 집(운영위원장 강덕환)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문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시 창작곳간'을 운영한다.

'떠듬떠듬 네게 기울어지던 말들'이란 이름을 단 이번 강좌는 4명의 시인들이 강사로 초청돼 시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에 필요한 안목을 길러준다. 실제 시 창작과 합평도 이뤄진다. 강사로 나서는 이들은 강의 날짜 순으로 박현솔·서안나·이병률·김해자 시인이다.

1999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2001년 '현대시' 신인상을 수상한 박현솔 시인은 5월 25~6월 8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강의를 이어 간다. 시집 '달의 영토', '번개와 벼락의 춤을 보았다' 등을 낸 박 시인은 계간 '문학과 사람' 주간으로 있다.

서안나 시인은 1990년 '문학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했다. 시집으로 '푸른 수첩을 찢다', '플룻 속의 그녀들' 등을 냈다. 서 시인은 6월 15~6월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강의를 이끈다.

이병률 시인은 7월 6~7월 7일 오후 7시 강의를 맡는다.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 시인은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등 다수의 시집과 여행사진산문집 '끌림' 등을 묶었다. 현재 달출판사 대표다.

김해자 시인은 7월 13~7월 14일 오후 7시에 강의한다.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한 김 시인은 시집 '무화과는 없다' 등을 냈고 만해문학상, 백석문학상, 전태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수강생은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70-4115-1038.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제주4·3평화재단이 시·장편소설·논픽션 3개 부문에 걸쳐 제10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공모한다.

시는 1인당 10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 논픽션은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의 분량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12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르별 당선작 1편을 선정하게 된다. 상금은 총 9000만원으로 장편소설 5000만원, 시 2000만원, 논픽션 2000만원이다. 당선작은 2022년 3월 중 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예술공간 서포터즈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예술공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6~12월 활동하게 될 서포터즈는 문예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예술곶 산양, 김만덕객주 4개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예재단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포터즈에겐 소정의 활동비와 콘텐츠 제작비(원고료)가 지원된다.

청소년연극제 참가팀 모집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청소년연극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연극제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반 또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까지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개교당 1개팀만 신청할 수 있다. 공연은 6월 14~20일 한라아트홀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실시된다. 최우수상 학교는 8월 충남 공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제주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755-0904.

달리도서관 온라인 북클럽

제주 달리도서관이 온라인 줌을 활용해 5월 '부끄럼북클럽'을 운영한다.

이달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번 북클럽에선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레이철 루이즈 스나이더, 시공사)을 함께 읽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사소하게 취급되었던 아내에 대한 폭력을 다룬 책이다. 모임에 참가하려면 사전 전화(702-0236) 신청을 하면 된다. 부끄럼북클럽은 매월 달리 정해지는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